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재환** · 이은희***

초 록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들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서 충동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의 조절효과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생 1,145명(남학생 552명, 여학생 59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충동성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통제력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역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 상담개입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문제행동, 충동성, 개인의 통제력,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 본 논문은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심리적으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환경적으로 기성세대나 부모의 권위와 간섭에 반항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주로 우범행위나 불량행위를 일컫는데, 광의적으로는 비행이나 범죄가 모두 문제행동의 개념에 포함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다시 말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법률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 청소년으로서 공동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적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조윤정, 2000).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김두섭·민수홍, 1996; 이옥주, 2004; 조윤정, 2000; Farrington, 2003; Henry et al, 1996), 가정환경적 특성(김준호·김순형, 1995; 민하영, 1991; 이영숙·고성혜, 1994; 정유미·김득성, 1998; 하영희, 2003; Barnes and Farrell, 1992), 그리고 학교환경적 특성(김준호·노성호, 1993; 민수홍, 1996; 정유미·김득성, 1998; Barnes and Farrell, 1992) 등 여러 요인들로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청소년 개인의 성격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의 주변환경으로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에 의한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충동성과 공격성(Moffit, 1993)을 주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충동성만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영미·최명숙,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개인의 내적변인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민수홍, 2005).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자녀 관계로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도덕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하영희, 2003).

문제행동 관련 요인들은 다시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장애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적인 생활환경 혹은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구분할 수 있다(Hoge et al., 1996).

한편 아이윈과 밀스타인(Irwin and Millstein, 1986)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에 기초한 상호작용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위험행동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시 위험행동의 원인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위험행동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에 의해 위험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또한 보호요인에 의해 위험행동이 예방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청소년 위험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보호요인의 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즉, 보호요인을 단지 위험요인과 대립되는 차원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한상철 외, 2003).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이다.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 개인의 통제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통제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내적(심리적) 요인들 중에서 충동성을 선정하고, 외적(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이 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이윈과 밀스타인(1986)이 제시한 위험행동의 상호작용적 모형에 근거하여,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설명력 가지며 조절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며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고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충동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절효과는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절효과는 있는가?
- 연구문제 4.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충동성과 문제행동

일반적으로 충동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arratt and Patton, 1983). 또한 임상장면에서 충동성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히스트로닉 성격장애 및 과잉활동장애와 같은 진단적 특성이나, 품행장애, 자애적 성격장애 및 강박성격 등과 같은 진단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Helmer et al., 1995).

스칼링 등(Schalling et al., 1988)은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이 높고 단조로움을 피하는 성격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화이트(White, 1994)는 탈억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취약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하기 때문에

충동성은 전 생애에 걸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하였다. 모피트(Moffit, 1993)는 반사회적 문제들과 폭력행위와의 지속적인 몰입은 초기의 신경생리적 문제들과 다루기 힘든 아동문제 및 빈약한 부모기술의 집합결과인 충동성에서 유래하며, 이러한 충동성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위의 위험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부쓰와 장(Booth and Zhang, 1996)도 청소년의 충동성을 사정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충동성과 관련된 문제행동과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윤영미·최명숙, 2003에서 재인용). 조윤정(2000)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향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이 많다는 것을 밝혔다.

종단적 연구에서도 충동성이 장래 폭력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ington, 2003; Henry et al, 1996). 충동성은 처벌에는 둔감한 반면에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성격특질로 간주되어 왔으며 반사회적 행동이나 상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는 정신병질의 기제로 제안되어 왔다(이옥주, 200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충동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에 대한 사정과 치료가 청소년 상담의 핵심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는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약물을 포함한 중독적 행동 또는 부적응적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이나연·김유숙, 1995).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과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비행이나 다른 반사회적 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준호, 1991). 이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들의 발달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수준,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화림, 2001).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 소홀 등과 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비행뿐만 아니라 범죄를 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성혜, 1999).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부모의 지나친 폐쇄성, 방임성, 통제성, 보호성 등의 양육방식은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최충욱, 1996).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예측변수는 부모의 과잉간섭, 방치, 애정, 비일관성요인 등(허묘연, 1999)인데,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방치요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방치’란 자녀의 신체적, 지적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풀킨넨(Pulkinnen, 1982)은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의 양육에 부모가 참여하지 않을 때, 초기 청년기의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일탈행동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노성호(1992)는 청소년들이 범죄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나 사랑의 결핍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타나지만,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문제행동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애정과 관심은 매우 중요하며,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문제행동 가능성이 낮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며,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주지 않고 비난과 체벌을 자주 가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개인의 통제력과 문제행동

청소년기가 되면 내분비샘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정서적으로 강해짐과 동시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고나 행동이 견잡을 수 없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김재은, 1996). 정서의 표출에 있어서도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출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을 더 큰 미덕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정서표현의 과도한 통제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들은 환경자극에 대하여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반응적이다. 이러한 충동성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통제능력의 결여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비행 행동 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포와 죄책감은 더 이상의 비행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수의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사회적 금지에 무감각해지고 일탈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김태련·장휘숙, 1995).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을 들 수 있는데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남이 보지 않거나 보상이 없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통제능력 때문으로 보았으며 사회화 된 많은 행동들은 내적으로 통제된 결과로 보았다(고정자, 2005). 자기통제력이란,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Gottfredson and Hirschi, 1990), 혹은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김현숙, 1998)으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통제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근면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고,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다고 본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부족은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김두섭·민수홍, 1996), 청소년 비행(민수홍, 2005; 하영희·김경연, 2003), 청소년의 성관련 비행(남영옥, 2004)과도 관계가 되는 등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범죄에서의 성차를 남녀 간의 자기통제력의 차이와 기회의 차이로 설명한다. 즉,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범죄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의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의 통제력이 여성의 통제력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민수홍, 2005).

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자녀 관계로서 (양현아·박영애, 2004),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하는 핵심요소로서 여겨진다. 그런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서병숙·조은경, 1994).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민하영, 1991).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제한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된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Barnes and Olson, 198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며(민하영, 1991; 오미경, 1997),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백경숙·권용신, 2004), 자아존중감(신효식·김근화, 2004), 문제행동(정유미·김득성, 1998), 자살생각(이지연 외, 20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미와 김득성(1998)은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부모-자녀 간 갈등을 일으켜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 제반 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송정아와 윤명선(1997)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와 효과적인 대화기술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향상에 필수적이라고 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지연(2003)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남자자녀, 부-여자자녀 간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모-여자자녀 간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했다.

III. 방 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지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16개교 중학교의 재학생이다. 각 학교별로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집단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1,179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많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총 1,149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1,149명의 자료 중 다변량 정규분포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치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4명을 제외시키고 나서 1,145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552명(48.2%), 여학생이 593명(51.8%)이었다.

2. 조사도구

1) 충동성 검사

Barratt Impulsiveness Scale(1969)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바레트(Barratt) 충동성 검사 II판의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충동성 9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 개발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고, 이현수(1992)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인지충동성 .73, 운동충동성 .70, 무계획충동성 .50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충동성 .56, 운동충동성 .69, 무계획충동성 .58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79였다.

2)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

허표연(199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43문항 중 ‘방치 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 방치 요인은 자녀의 신체적, 지적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3) 개인의 통제력

헤프너와 피터슨(Heppner and Peterson, 1982)의 PSI(Problem Solving Inventory) 중 개인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5이었다.

4) 부모-자녀 의사소통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 의해 개발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1였다.

5) 문제행동

안석(2000)이 개발한 문제행동척도 15문항 중 인터넷 관련 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문제, 학교문제, 가족문제, 사회적 문제의 4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전혀 없었다'(1점)에서 '항상 있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안석(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8이었다.

3. 분 석

청소년들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학년에 기인한 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통제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충동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 개인의 통제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의 조절효과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and West, 199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상호작용효과($X*Z$)변인이 추가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감소하는 전략으로서 centering 방법(Aiken and West, 1991; Aldwin, 1994)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는 두변인간의 비직선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측정오차에 의한 곡선적 효과에 의하여 의사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Lubinski and Humphreys, 1990; MacCallum and Mar, 1995)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 중에서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은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IV. 결 과

1.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행동은 충동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개인의 통제력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심화되며 개인의 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성별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1. 문제행동	-	.36***	.29***	-.35***	-.04
2. 충동성	.42***	-	.19***	-.34**	-.23***
3. 부모의 양육태도	.33***	.20***	-	-.14***	-.23***
4. 개인의 통제력	-.39***	-.36***	-.18***	-	-.03
5. 부모-자녀 의사소통	-.37***	-.33***	-.49***	-.15***	-

주. 대각선 위쪽은 남학생(N=552), 대각선 아래쪽은 여학생(N=593)의 상관관계임.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변인들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충동성,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

녀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집단이 여자 청소년 집단보다 개인의 통제력 수준이 높았으며($t = 5.02, p < .001$),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보다 충동성 수준이 높고($t = 4.37,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95, p < .01$).

<표 2> 연구변인들의 성별 차이

변 인	남 자 ($N=552$)		여 자 ($N=593$)		t
	M	SD	M	SD	
문제행동	1.68	.42	1.66	.43	0.75
충동성	2.19	.34	2.29	.35	-4.37***
부모의 양육태도	1.50	.50	1.44	.49	1.92
개인의 통제력	3.03	.62	2.84	.61	5.02***
부모-자녀 의사소통	3.14	.88	3.30	.94	-2.95**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변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년(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충동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개인의 통제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들에 의해서 17.7%가 설명되고, 개인의 통제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들에 의해서 5.4% 설명된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학년에 의해서 3.6%가,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들에 의해서 22.0%가 설명되고, 개인의 통제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들에 의해서 7.1% 설명된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학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들이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각기 $\beta = .31, p < .001$; $\beta = .23, p < .001$). 또한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개인의 통제력 변인이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beta = .24, p < .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학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들이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각기 $\beta=.35$, $p<.001$; $\beta=.25$, $p<.001$). 또한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개인의 통제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들이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각기 $\beta=-.24$, $p<.001$; $\beta=-.18$, $p<.001$).

따라서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개인의 통제력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차별적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인	남 자		여 자	
	B	β	B	β
학년	.05	.10	.08	.08**
R^2		.005		.036
$AdjR^2$		.003		.034***
ΔR^2		.005		.036***
학년	.05	.07	.12	.14***
충동성	.38	.31***	.43	.35***
부모의 양육태도	.19	.23***	.22	.25***
R^2		.182		.256
$AdjR^2$		.177***		.252
ΔR^2		.177***		.220***
학년	.05	.07	.10	.11**
충동성	.30	.25***	.29	.24***
부모의 양육태도	.18	.22***	.13	.15***
개인의 통제력	-.16	-.24**	-.17	-.24***
부모-자녀 의사소통	.03	.06	-.08	-.18***
R^2		.238		.327
$AdjR^2$		.231***		.321***
ΔR^2		.054***		.071***

* $p<.05$. ** $p<.01$. *** $p<.001$

4.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의 조절효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 인	남 자		여 자	
	B	β	B	β
학년	.05	.10	.08	.08***
R^2	.005		.036	
Adj R^2	.003		.034***	
ΔR^2	.005		.036***	
학년	.78	.07	1.64	.13***
충동성	.20	.27***	.23	.31***
개인의 통제력	-.49	-.26***	-.53	-.27***
R^2	.193		.258	
Adj R^2	.189		.255	
ΔR^2	.172***		.222***	
학년	.80	.05	1.64	.13***
충동성(A)	.20	.28***	.23	.31***
개인의 통제력(B)	-.51	-.27***	-.52	-.26***
조절효과(A×B)	-.10	-.05	-.01	-.04
R^2	.196		.260	
Adj R^2	.190		.255	
ΔR^2	.003		.002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역완충효과가 여자 청소년집단에서만 확인되었다 ($\Delta R^2=.014$, $\Delta F=10.63$, $p<.01$).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들이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곡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의 증분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Delta R^2=.000$, $\Delta F(1, p).05$)과 (부모-자녀 의사소통)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Delta R^2=.004$, $\Delta F=3.17$, $p).05$)보다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효과가 더 커서 의사조절 효과가 아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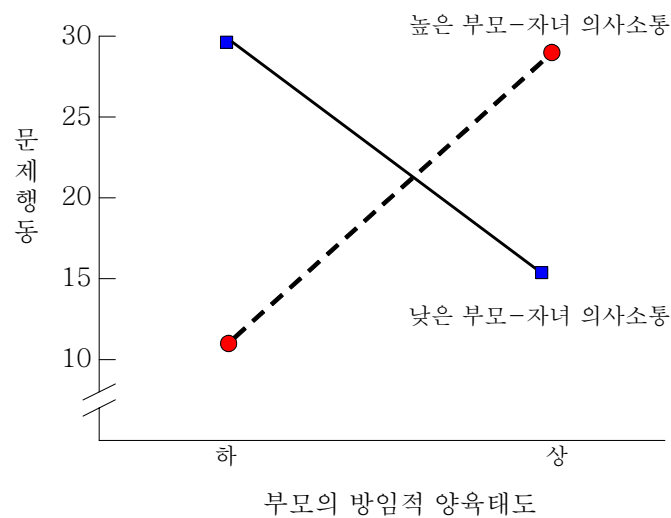
즉,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변인은 오히려 문제행동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 인	남 자		여 자	
	B	β	B	β
학년	.05	.10	.08	.08***
R^2	.005		.036	
Adj R^2	.003		.034	
ΔR^2	.005		.036***	
학년	.77	.07	1.86	.15***
부모의 양육태도	.69	.29***	.48	.19***
부모-자녀 의사소통	.05	.03	-.42	-.26***
R^2	.089		.189	
Adj R^2	.084		.185	
ΔR^2	.084***		.153***	
학년	.77	.07	1.89	.15**
부모의 양육태도(C)	.69	.30***	.59	.24***
부모-자녀 의사소통(D)	.05	.03	-.41	-.25***
조절효과(C×D)	.01	.02	.07	.13**
R^2	.090		.203	
Adj R^2	.083		.198	
ΔR^2	.001		.014	

* $p<.05$. ** $p<.01$. *** $p<.001$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 각각의 $+1SD$ 와 $-1SD$ 점수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Howell, 2002)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아질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감소하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임적 양육태도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서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방임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동성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아이윈과 밀스타인(1986)이 제시한 위험행동의 상호작용적 모형에 근거하여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절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충동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윤영미·최명숙, 2003; 이옥주, 2004; 조윤희, 2000; Farrington, 2003; Henry et al, 1996)과 부모의 엄격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하영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인의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개인의 통제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김선희, 2000; 김현숙, 1998; 하영희, 2003)과 일치하며, 개인의 통제력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억제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 상담 시에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키는 개입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에서 성차가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김두섭·민수홍, 1996; 민수홍, 1996;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1993; 고정자, 2005에서 재인용)과 일치하며, 범죄에서의 성차를 남녀 간의 자기통제력의 차이와 기회의 차이로 설명하는 자기통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민수홍(2005)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진 바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통제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는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의 지지를 더 받으며 부모와

의 대화 정도가 더 많다고 한 김성연(1998)의 연구결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김지연(2003)의 연구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부모-자녀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어느 정도 설명력 가지고 있으며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의 역완충(counter-buffering)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여자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을 약화시키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불만이 있는데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이 높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고 있다가 부모가 대화를 통해 간섭하게 될수록 억제되어있던 분노가 외현적으로 분출되는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에 자녀와 비교적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녀간 의사소통시 명령, 간섭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는 의사소통 태도 및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이소영·옥선화, 2002),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갈등이 주로 숙제나 학교 성적으로 인한 갈등(공인숙 외 2005; 나은아, 1995, 이주옥, 1993)이며,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와 주로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김정자 외, 1990)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자녀에 대한 방임적 양육태도 정도가 높은 부모들도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주제나 고민들에 관한 의사소통보다는 학업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박경란·장현숙, 1999) 부모가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 자체를 방치하거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방임적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부모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격려, 칭찬, 애정 등을 표현하는 합리적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기조절감과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신향숙·장윤옥, 2001) 부모-자녀가 의사소통시에 바람직하

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다보니 의사소통할 기회가 늘어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해결되지 않는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내부적인 욕구불만을 일으켜 문제행동으로 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충동성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통제력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성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억제요인과 역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들의 특성을 망라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고등학생을 비롯한 다른 연령층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은 연구대상인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태도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주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제한점이 따른다. 넷째, 충동성과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력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연구가 실험연구에 비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McClelland and Judd, 1993)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밝혀진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문제행동을 잘 예언하는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개입전략 수립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키는 훈련(예, 분노조절 프로그램), 부모-자녀 의사소통 훈련(예,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실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방임적인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훈련이 오히려 자녀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가정환경요인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모든 청소년 연령층에서 보편화되고 저연령화 되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고등학생들을 포함하는 연령별, 학교급별 차이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정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요인만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나,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대중매체 등과 같은 요인들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9). 청소년비행 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1~17.
- 공인숙·이은주·이주리(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 생활과학지, 제14권, 제6호, pp.925~936.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변화순·윤영숙·강선희·제갈정(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은(1996).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준호(1991).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장휘숙(1995).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은아(1995).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2004).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과 정신

- 건강 연구. 상담학연구, 제5권 제4호, pp.1139~1153.
- 노성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25.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장현숙(1999).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3호, pp.143~165.
- 백경숙·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87~99.
- 서병숙·조은경(199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의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1호, pp.104~116.
- 송정아·윤명선(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71~82.
- 신효식·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47~58.
-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5호, pp.189~209.
-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6호, pp.847~860.
-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09~123.
- 윤영미·최명숙(2003).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영향요인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제9권, 제3호, pp.323~331.
- 이나연·김유숙(1995).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기능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3

- 권, pp.155~168.
-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7호, pp.53~68.
- 이영숙·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옥주(2004). 충동성과 대처양식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3호, pp.249~267.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김효창·현명호(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375~394.
- 이현수(1992).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화림(2001). 부모 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3호, pp.31~45.
- 조윤정(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충옥(1996). 현대사회와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 3, 서울: 양서원.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14권, 제4호, pp.29~40.
- 하영희·김경연(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7권, 제1호, pp.17~30.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양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상철·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허보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ken, L. S., and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dwin, C. M.(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arratt, E., and Patton, J. H.(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 J.: Erlbaum.
- Barnes, G. M., and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pp. 763-776.
- Barnes, H. L., and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Farrington, D. P.(2003). Key results from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Cambridge study of delinquent development. In T. P. Thornberry, & M. D. K. Krohn (Eds.), *Taking stock of delinquency: An overview of findings from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pp.137~183). New York: Kluwer.
- Gottfredson, M.,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lmer, K. F., Young, S. N., and Phil, R. O.(1995). Assessment of measures of impulsivity in healthy male volunte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9, pp.927~935.
- Henry, B., Caspi, A., Moffit, T. E., and Silvia, P. A.(1996). Temperamental and familial predictor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convictions: Age 3 to age 18.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2, pp.614~623.
- Heppner, P. P., and Peterson, C. H.(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9, pp.66~75.
- Hoge, R. D., Andrews, D. A., and Leschied, A. W.(1996). An investigation of risk

- and protective factors in a sample of youthful offen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 37, 419~424.
- Howell, D. C.(2002).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5th ed). Pacific Grove, CA: Duxbury.
- Irwin, C. E., Jr., and Millstein, S. G.(1986). Biopsychological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Vol 7, pp.82S~96S.
- Lubinski, D., and Humphreys, L. G.(1990). Assessing spurious “moderator effects”: Illustrated substantively with the hypothesized(“synergistic”) relation between spatial and mathematical 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385~393.
- MacCallum, R. C., and Mar, C. M.(1995). Distinguishing between moderator and quadratic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8, pp.405~421.
- McClelland, G. H., and Judd, C. M.(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4, pp. 376-390.
- Moffi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474~505.
- Pulkkinen, L.(1982). Self-control and continuity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P. B. Baltes & O. G. Ba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lling, D., Edman, G., Asberg, M., and Oreland, L.(1988). Platelet MAO activity associated with impulsivity and aggres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9, 597~605.
- White, P. D.(1994) A comparison of self-report and relative ratings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6, pp.801.

ABSTRACT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Kwon, Jae-Hwan* · Lee, Eun-He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impulsivity, parent-child 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t also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depending upon the gender.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145 junior high school students (522 boys, 593 girl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levels of boys' and girls' problem behaviors were predicted in terms of impulsivity, parent-child rearing attitude, and self-control. However, onl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came into play in predicting the levels of girls' problem behavior.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aring attitude and problem behavior in girls. The current findings will be conducive to providing a general framework to develop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problem behavior, impulsivity, parent-child 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trol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5월 30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Gwangju University

** Kyungnam University

